

익산시, 공유지 개발 사업 지속 추진

공유지 일부 '홀로그래프 지식산업센터' 건립 예정... "LH와 협력해 조속히 사업 재개할 것"

익산시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 확보 사업으로 기획한 공유지 개발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23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앞서 '옛 경찰서 부지'를 개발해 얻은 수익을 신청사 건립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50여 년 만에 추진되는 신청사 건립에 들어갈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2017년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인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에 선정된 것이 이 계획의 단초가 됐다. 시는 해당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손을 잡고 시유지인 옛 경찰서 부지를 활용해 다각적 수익모델을 추진기로 했다.

그러던 2021년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진행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로 제시된 제안에 따라 기존에 세웠던 수익성 위주의 개발에서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갖춘 복합 개발사업으로 변경됐다.

이에 시는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홀로그래프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홀로그래프 콘텐츠 집적화를 이뤄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미래산업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센터는 350억 원 가량의 건립 비용 중 160억 원을 정부 지원으로 충당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한다는 의미의 무형적 가치는 단순한 개발사업으로 얻는 이익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자원으로 여겨진다.



익산시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 확보 사업으로 기획한 공유지 개발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중간 지역의 자부심이자 자선이 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4월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수익성 모델로 검토한 주택건설 분양 사업에 대해 '건설 시장 경기가 급격하게 악화하며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라며 '무리한 사업 추진은 시민 동의를 얻기 어려운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LH 측 역시 협 건설경기 상황에 단기간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시의회 의견에 따라 해당 부지 개발 구성과 사업 추진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시는 시의회와 LH 측 의견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건설경기 추이

를 고려해 상황에 맞춰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도 건설국장은 "공유지 개발 사업 중단에 대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예상치 못한 건설경기 악화로 사업의 한 축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조속히 사업 추진이 재개될 수 있도록 LH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 신청사 건립사업은 현재 1단계로 사무공간 건립과 입주자를 마무리했다. 앞으로 옛 청사를 철거하고 어린이집과 소공원, 광장, 다목적홀 등 시민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2단계 공사가 내년까지 추진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청 주차타워 내달 준공... 233대 수용

시청 업무시간 외... 일반 시민에 1~4층 전면 개방

익산시청 제2주차장이 1년의 공사를 마치고 오는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23일 익산시에 따르면 '남중동 주차타워 조성사업'은 2021년 주차환경 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지난해 10월 첫 삽을 떴다. 기존 익산시 제2청사 앞 50면 규모 평면주차장 위에 233면 규모 입체 주차 타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시는 철골 특허공법을 적용해 기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내부 주차공간을 확장했다. 특히 저층을 바닥층을 사용했으며, 외부 조경 식재로 공해 저감효과를 도모한다. 총사업비는 84억 원으로 도비와 시비가 각각 42억 원씩 투입됐다.

연면적 6,680㎡, 지상 4층, 5단 규모로 차량 총 233대를 수용할 수 있다. 시는 보다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층별로 전용구역을 지정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업무시간인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층(41면)은 민원인과 지역주민을 위한 구역으로 무료 운영된다. 2~4층(141면)은 익산시청 직원 전용구역, 옥상층(51면)은 공용차량 통합관리를 위한 관용차 전용구역으로 운영된다. 업무 외 시간은 1~4층의 182면을 주민에게 전면 개방한다.

시는 이번 주차타워 조성으로 시청사 인근 주차 문제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주차 이용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제3주차장 건립 등 다양한 방안에도 검토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대 정주형 교수, 우수신진연구과제 선정

국립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정주형 교수는 '입자 함유 생분해성 폐기물 유래 고효율 청정수소 생산 연속 통합 시스템 개발' 연구로 2024년도 한국연구재단 우수신진연구과제에 선정돼 2024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국가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정주형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음식물류폐기물 등 유기성 폐기물로부터 바이오수소 생산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으며, 연구개발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비용 및 탄소 저감 등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우수신진연구과제



제는 젊은 연구자들이 원하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핵심과학기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기초연구사업과제이자 국가연구사업과제로 39세 이하, 조교수 임용 5년 이내 또는 박사 취득 후 7년 이내의 대학 이공분야 전임교원 및 국(공)립·정부출연·민간 연구소의 정규직 연구원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제2회 화학안전주간 행사 추진

22일 개막, 주요 유해화학 물질에 대한 시민·기업 공감의 자리 마련

'화학사고 없는 안전 도시 군산을 위하여' 주제로 각종 체험·전시 활동

'화학사고 없는 안전 도시 군산을 위하여' 군산시가 올해도 제2회 화학안전주간 행사를 10월 22일부터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군산시가 주최하고 군산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화학물질안전원, 전북119특수대응단 화학구조대, 전북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OCI(주), 백광산업(주), 도레이첨단소재(주), 삼양이노켄(주), (주)디에스 단석, (주)성일하이텍, 대상(주)전분당, (주)SH에너지화학, (주)유니비티플러스 등 기관과 단체가 함께하게 된다.

제2회 화학안전주간은 △23일 중소기업 협업 훈련 △25일 황룡문화원 노관순 홀에서 열리는 기념식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며, 25일 황룡문화원 광장

에 설치된 15개의 부스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알리는 체험 및 전시가 펼쳐진다.

특히 시는 최근 잦은 화학사고 발생으로 인한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강화했다.

△ 화학사고 대비·대응 태세 환기 △민·관·산·학이 함께하는 안전한 군산 만들기 노력 △이차전지 특화단지(광물제품 및 재활용) 지점에 따른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방안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눈에 띄는 체험 부스도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의 가상현실(VR) 체험은 화학사고 대응과 안전 방법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전북119 특수대응단 화학구조대 소방차 및 장

비 소화 △전북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알려주는 유자학교 활동 △군산시 환경정책과 체험 부스 등이 선보인다.

참여를 원하고, 화학 안전에 관심 있는 군산시민들은 25일 오전 10시에 군산대학교 황룡문화원으로 방문하면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5개 이상의 부스를 방문하면 군산에서 기념품도 선물한다.

환경정책과 조병천 과장은 "이번 제2회 군산시 화학안전주간 행사로 군산시의 화학 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 방법, 각 기관의 역할 등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을 맺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 STAY 창업가 주거지원사업' 모집

최대 2년 동안 보증금 350만원·월 임대료 10만원 지원

23일 군산시는 2024년 '군산 STAY 창업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예비)창업가와 창업기업의 직원에게 LH 전북본부와 협력하여 최대 2년 동안 임대주택의 보증금(최대 350만원)과 월 임대료(최대 10만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부터 시작한 본 사업을 통해 4년간 총 40명의 창업가들이 입주하였으며, 지원 기간 종료 이후에도 80% 정도가 계속 거주할 정도로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임대 원금은 나은동, 수

송동, 지곡동 등 20여 개로 입주 계약 체결 시 입주자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배정한다.

지원 자격은 예비창업자, 업력 7년 미만의 기 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최근 사업 활성화를 위해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로 연령 요건을 완화하였다.

기타 군산 STAY 사업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군산시 일자리경제과 창업사회적경제계(☎454-4392)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2025년 신설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도 홍보

군산시는 23일부터 해양수산부에서 2025년부터 시행예정인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도'에 대해 관내 양식업인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안내에 나선다.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도는 내년도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존에는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시 관적으로 기존 양식업자에게 면허를 부여하였으나 2025년 이후에는 여건의 환경상태, 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면허를 부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한 본 제도는 양식업인들에게 △어장환경 개선 △책임감 있는 경영 유도 △체계적인 양식장 관리에 따른 지속 가능한 생산성 유지 향상 △공유수면의 일시적 이용권 부여에 따른 어장관리 의무와 책임성 인식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25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 제도는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어장환경평가 관리실태(휴업기간, 불법임대) △수산법령 위반 여부 및 횡수 △어장정식기간 및 어장정식 횡수 등을 심사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재면허가 승인되거나 조건부로 승인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미흡한 경우엔 재면허 승인이 거부될 수도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 우수저류조 5곳 설치

원료...재해 예방 '박차'

익산시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익산시는 상습 침수지역에 우수저류조를 설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우수저류조는 모현동 2개소, 마동 1개소, 주령동 1개소, 동산동 1개소로 총 5개소다.

우수저류시설은 30~50년간 시간당 최대 강우량을 적용하는 기준으로 설계되어 하며,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 사업을 진행한다.

익산시는 50년 내에 가장 많은 우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50년 경우 빈도를 적용한 우수저류조를 설치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대전

전주매일 캠페인